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

용서할 줄 아는 자녀

용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용서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
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
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요일2:10,11)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5:7)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다음 페이지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OO(아이의 이름)가 언제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용서하시
는지 깨닫게 해 주셔서 OO(이)도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OO(이)를 도우사 용서할 결심을 하게
하시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용서함으로 자신이 자유로
워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정을 속속
들이 알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할 권리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용서하고 친구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
옵소서. 과거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죄의 역사를 받
아들이게 하옵소서. 분개한 마음이나 비정한 마음, 분노 따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시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기 인생에서 일어
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오니, OO(이)가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게 하
여 주옵시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며, 자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학대하는 자들
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OO(이)로 하여
금 하나님의 충만한 용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마음 깊이
용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상달 칼럼



두상달 장로
가정문화원 이사장

부부대화에 있어 남편들이 아내에게 갖는 불만은 “도대체 결
론이 뭘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다. 반면 아내들은 이야기를 끝
까지 들어주지 않고 “결론이 뭘
야? 결론만 말해”라고 다그치는
남편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낀다.
“부부가 이야기 좀 하자는데,
무슨 토론장에 나왔어요? 결론
이 왜 중요해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재미삼아 나누는 거지
요.” 항변해보지만 무시해버린다
“아니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아무 결론도 없는 이야기를 뭐

하러 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표현 방식이 다
르다. 남자들은 주로 ‘결론만 간
단히’ 이야기 하는 축소결론형
어법을 사용한다. 만 가지 생각
이나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언어 축지법 도사들이다.

반면 여자들에게는 한 가지 생
각이나 느낌을 만 마디로 늘어
표현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확대

반대로 강연을 듣고 집에 돌아
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어보았다.
“오늘 강연 어땠어요?”
“음, 좋았어.” 이 한마디뿐이
다. 아내는 무엇이 좋았는지 궁
금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세하
게 물어 보지만 단답형이다. 남편은
귀찮아하면서 짜증을 부린다.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으
면 여태까지 앉아 있었겠어?”

는지, 어디에 갔는지, 저녁은 무
엇을 먹었는지가 정말로 궁금할
뿐이다. 이것이 여자와 남자가
다른 점이다.

여자들은 대화를 하면서 친밀
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푼다. 당연히
특별한 주제나 결론이 있을 리
없다. 남자들이 쓰잘데없는 수다
라고 무시하는 여자들의 대화

맹탕 헛소리 그래도...

“몇 명이나 들으러 왔어요?”
“내가 세어 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무슨 얘기 했는데요?” “어제
말했잖아 대화에 대해서 강의
한다고.”

“여자들도 많이 왔어요?”
이쯤 되면 남편들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 뒤통사를 하나?’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내가 이런저런 질문을
퍼부어 대는 것은 결코 뒤통사
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내들
은 남편이 나가서 누구를 만났

거기에 아내들의 심리적인 치유
가 있다.

그래서 여자들의 수다에는 쓸
데없는 소리가 주류다. 모두가
헛소리다.

그래도 그냥 들어 달라는 것이
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
하다.

결론만 들으려는 꼭 막힌 남편
들이여!

쓰잘데없는 아내들의 이야기
모두가 맹탕 헛소리라고 해도
그냥 들어주어라. 그게 부부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은 돕는다

남편의 우선순위

주님, 남편의 우선순위가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주께
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가 매일 주님과 더
불어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소박한 삶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과 기도와 찬양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그를 깨우쳐 주옵소서. 저와
우리 자녀들을 그의 경력과 친구들과 여러 활동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제 남편이 항상 주를 먼저 찾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
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의 삶의 다른 모든 부
분들도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 일,
가족, 친구들, 여러 활동들, 관심사들보다 남편을 더 우선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있어서 그가 이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요한:7

남편의 인간관계

주님, 남편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선하고 경건한 친구
들을 사귀게 해주옵소서. 단지 그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하지 않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 줄 지혜롭고 믿을 만한 친구들이게 하옵소서. 잠28:23

그에게 분별력을 주사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옵소
서. 고후5:13 그에게 경건한 우정의 중요성을 알려 주시고, 제가 그에게
그런 우정을 잘 유지하도록 격려하게 하옵소서.

남편이 자신의 식구들, 이웃, 친지, 동료들과 더불어 깊고 화목한 관
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편과 (특정인의 이름)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화가 있었던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34~35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잠28:23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1:7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5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
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
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
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
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